

구관이 명관 vs 신관이 명관

최정·박병호 등 전통적 홈런 강자 속 새 얼굴 한동민도 멀티홈런 경쟁 가세 홈런수 하락...바뀐 공인구가 변수로

홈런왕 레이스의 잠룡들이 차례로 수면 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박병호(33·키움 히어로즈)와 최정(32·SK 와이번스)은 홈런 공동 1위(9개)의 외야수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신진 세력인 한동민(SK)을 비롯한 여타 홈런왕 후보들 모두 하나둘씩 상위권으로 모여든다.

그야말로 장군명군이다. 8일 박병호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 5회 4-0으로 달아나는 시즌 9호 아치로 2연속경기 홈런포를 가동했다. 7일 최정이 한화 이글스 선발 투수 김범수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1·3회)을 터뜨리고 홈런 단독 1위에 올랐는데, 박병호는 최정의 독주를 오래 지켜보지 않았다. 2012~2015 시즌 4년 연속 홈런왕에 빛나는 박병호와 2016~2017시즌 연달아 홈런 1위를 차지한 최정의 미묘한 신경전이다.

더욱이 박병호는 0.371의 고타율을 기록 중임에도 경기 전 가장 먼저 그라운드로 나와 개인 특별타격 훈련을 소화했는데, 팽방울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최정 역시 8일엔 홈런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2타수 1안타 2득점 1볼넷으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

둘에 대한 견제 양상 또한 심상치 않다. 몰아치기에 능한 SK 한동민은 8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 1회 2점 홈런을 쏘아 올린데 이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오른쪽)가 8일 고척 LG 트윈스전에서 5회 솔로홈런을 터뜨린 뒤 서건창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박병호는 9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SK 와이번스 최정과 함께 이 부문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어 6회 개인 통산 5호 그랜드슬램을 작성하며 홈런 공동 5위(7홈런)로 올라섰다. 개인 한 경기 최다 7타점의 기록도 새로 썼다. 그는 팀 동료 제이미 로맥과 2018시즌 홈런왕 김재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정과 박병호의 뒤를 부지런히 추격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홈런 레이스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 막바지까지 자웅을 겨뤘던 면면이다. 최정만 35홈런으로 밀려난바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새로운 얼굴들도 곧잘 보인다. 홈런 8개로 공동 3위를 이루고 있는 양의지(NC 다이노스)와 이원석(삼성 라이온즈)이다. 역대 통산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 각 23개, 20개에 불과하지만, 올 시즌엔 출발부터 홈런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기존 홈런왕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두산의 새 외국인 타자인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도 공동 5위에 올라섰다.

KBO리그에서 근 10년 사이 최소 홈런으로 부문 1위에 오른 것은 2011년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30홈런을 때린 최형우(현 KIA 타이거즈)다. 올 시즌 반발력이 줄어든 새 공인구의 영향 탓에 전반적으로 홈런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런왕의 기준 홈런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현실. 이런 조건 속에서 구관들이 자신의 명성을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고척 |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이영하

두산 연승 뒤엔 늘 이영하

KIA전 8이닝 무실점...6연승 견인

두산 베어스가 연승 숫자를 '6'까지 늘렸다. 선발투수 이영하가 또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영하는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시즌 5차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했다. 8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으며 팀의 1-0 신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날 이영하는 KIA '에이스' 양현종과 선발 맞대결을 벌였다. 기량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노련한 양현종을 상대로 이영하는 프로 3년차 투수답지 않게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큰 위기조차 없었다는 게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영하는 2회까지 연달아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며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3회 역시 단 세 타자만 상대했고, 4회에는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냈지만, 병살타를 만들어 즉각 이닝을 마무리했다.

후반부에도 지지는 기색이 없었다. 6회에 안타를 한 개 맞았을 뿐, 7회와 8회에는 또다시 삼자범퇴이닝을 만들어 KIA 타선을 철저히 봉쇄했다.

이영하는 완봉승을 위해 9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으나 선두타자 이명기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이날 투구를 마쳤다. 어린 투수의 호투에 타선은 6회까지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 7회에 침금같은 점수를 뽑았다. 양현종을 상대로 2사 1·2루 찬스에서 7일 경기 끝내기 안타를 때린 허경민이 또다시 적시타를 날렸다. 좌익수 왼쪽으로 흐르는 안타를 만들며 2루주자 오재원을 불러들였다.

9회에 이영하로부터 공을 이어받은 이형범~함덕주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나눠 막으며 팀의 1-0 승리를 지켰다. 두산은 시즌 두 번째 6연승을 질주하며 승률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공교롭게도 두산의 연승 속에는 언제나 이영하의 승리가 함께한다. 올 시즌 개인 첫 승을 거뒀을 때는 팀이 본인의 등판 앞두고 6연승을 내달렸고, 2승 때는 이후 3연승을 기록했다. 3승은 4연승, 4승 때는 다시 3연승을 마크했다. 개인 5승째를 거둔 8일에는 다시 팀의 6연승을 이어가며 팀 연승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잠실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최첨단 PTS 판정 눈앞... '포수 손기술' 사라지나

(Pitch Tracking System)



이경호의 해피존

포수의 프레이밍은 감탄을 자아낸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정상급 포수의 기술은 참 절묘하다. 성공적인 프레이밍 하나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프로야구 구심의 볼 판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을 프레이밍이 증명한다.

볼과 20년 전만해도 구심의 볼 판정에 대한 불만은 심층 단계에 머물렀다. 그때도 중계화면은 있었지만 전광판 왼쪽에서 찍는 카메라 앵글은 구심의 눈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었다. 더 과거로 돌아가면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경기 후반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훨씬 넓어지기도

했다. 중계방송조차도 드물었던 그때는 항의해도 구심이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프로야구 경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향후 몇 년 안에 트랙맨 혹은 PTS(Pitch Tracking System)가 구심 대신 볼 판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이 포수 뒤에 위치해 스트라이크 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이 구심에게 무선 통신으로 볼 판정을 송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군 구장에도 PTS가 설치돼 있다. 팬들도 모바일 문자 중계에서 PTS를 통해 실시간으로 투수가 던진 구종과 구속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PTS가 있어 스트라이크와 볼 여부도 구심보다 팬

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더 이상 구심의 볼 판정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는 이유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구심마다 미세하게 다른 스트라이크존도 경기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팬들이 구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역전된 것이다. 볼 판정은 심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만 첨단 시스템과 경쟁이 어려운 영역이다.

KBO리그도 메이저리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PTS가 볼 판정을 하면 아무리 뛰어난 포수라도 프레이밍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 프레이밍은 스핏볼처럼 야구역사에 기록될 추억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볼 판정은 정교해지고 경기는 더 공정해진다. 불확실한 요소가 줄어든 만큼 투수와 타자는 물론 팬들도 더 높은 신뢰 속에 승부를 하고 관람을 즐길 수 있다.

그라운드를 떠나 전 사회적으로 10년 전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마트폰은 2008년 보급되기 시작했다. 11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야구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소비 통로가 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야구장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관중석 위치에서 'VR중계'를 즐길 수 있는 시대도 곧 시작된다.

10년 뒤 야구장이 어떤 풍경으로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집에서 야구장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게, 생생하게 경기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면 그에 맞춰 프로야구 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스포츠부 차장 rush@donga.com

LG 대체 선발 장원삼, 3.2이닝 3실점 조기 강판

8일 게임 브리핑

●...LG 트윈스 '대체 선발' 장원삼이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3.2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1회 키움에게 1점을 허용했지만 2, 3회는 삼자범퇴 등에 성공하며 잘 버텼다. 하지만 4회 2사 이후 임병욱을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시켰고, 후속타자인 이지영과 이정현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2점을 추가로 내줬다. 장원삼은 4회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구원 투수 심수창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LG 외국인 타자 토미 조셉은 이

전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퓨처스리그서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출장해 4타수 2안타(1홈런 포함) 2타점 3득점을 올렸다. 류중일 감독은 "9일 퓨처스리그 경기에서의 모습을 보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주말 경기에 1군으로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자이언츠 제이크 톨슨이 시즌 두 번째로 5회 이전 강판의 아픔을 맛봤다. 수원 KT 위즈전에 선발등판해 4.2이닝 5피안타 6볼넷 4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109개로 많았다. 3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으나 4회 1사 후 3볼넷 1안타를 연달아 내주는 등 4실점했다. 5회에도 2사

후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더 내준 그는 서준원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한화 이글스 우완투수 윤호솔이 1군 엔트리에 등록되자마자 인천 SK 와이번스 전 6회말 4번재 투수로 등판해 0.1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2013년 NC 다이노스의 우선지명을 받고 프로에 데뷔했던 윤호솔의 이적 이후 첫 1군 등루이자 등판. 계약금 6억 원을 받았던 윤호솔은 지난해 3월 포수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고, 과거 1군 등판 기록은 2014년 2경기(평균자책점 13.50)뿐이었다. 윤호솔은 올 시즌 퓨처스리그 4경기(4이닝)에서 1세이브,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했다. 외야수 양성우도 이날 함께 1군으로 올라와 9번 우익수로 SK전에 선발출장했다. 투수 박윤철과 포수 김종민이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T 위즈 이상화의 복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50구의 불펜 피칭에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실전 등판을 거친 뒤 풀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강철 감독은 수원 롯데자이언츠전에 앞서 "6월 즈음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화는 2017년 70경기(리그 3위)에 나서 4승3패4홀드6세이브, 평균자책점 3.95로 활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른 팔꿈치 뼈조각 및 석회질 제거 수술을 받아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그는 7일 재활군에서 50구의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지난달부터 불펜 피칭을 시작한 그는 5월 들어 투구수를 바짝 올리고 있다. 1일 45구~3일 40구~5일 50구를 던지며 차츰 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